

## 北京의 공원

김 윤 기

이화원(頤和園)은 서태후(西太后)의 여름 별궁이다. 청나라 말기, 대청제국(大清帝國)을 막후에서 호령하던 여걸 서태후가 1888년, 은 3천만냥을 투입해서 지은 거대한 조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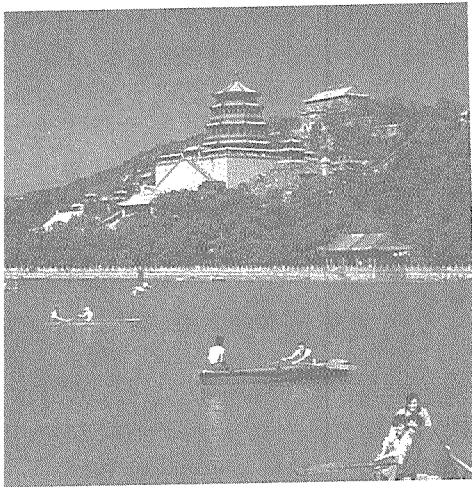
총면적은 290헥타나 된다. 그 안에는 인공의 곤명호(昆明湖)와 인공의 만수산(萬壽山)이 있고, 호반에서 만수산으로 오르면서 50여개의 누각이 세워졌는데, 호수를 바라보는 기다란 장낭(長廊)이 각 건물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 장낭의 길이는 728m나 된다. 장낭의 천정과 난간에는 모두 틀린 극채색(極彩色)의 그림이 8천여점이나 그려져 있다. 중국의 정원건축중 가장 긴 낭하로 알려진 이 장낭이 끝나는 곳엔 돌로 만든 배 석방(石舫)이 있다.

만수산 꼭대기에 있는 불향각(佛香閣)은 8면4층으로 된 높이 60m의 전각인데, 이화원의 심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전각은 파괴되고 없어졌으나 서태후가 40년간 정무를 봤다는 인수전(仁壽殿), 침실이었던 악수당(樂壽堂) 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인수전의 뒤에 있는 옥란당(玉瀾堂)은 서태후에 의해 죽을 때까지 유폐된 광서제(光緒帝)의 비극의 장소였고, 북쪽의 덕화전(德和殿)은 서태후 60세 탄생일을 기념하여 지은 전당인데, 은 70만냥을 투입했다 한다.

또 그 뒷쪽에 있는 이낙전(頤樂殿)에는 당시의 진품과 외국에서 기증받은 자동차



▲여걸 西太后가 집정하던 청황실의 별궁 이화원. 인공호수 곤명호와 인공산 만수산이 있다.



◀ 돌로 만든 배 석방(石舫).  
만수산의 꼭대기에서부터  
50여개의 누각을 연결하는  
긴 복도(長廊)가 호수에  
떠있는 석방에 이르러  
끝난다.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각 전각안에는 서태후와 황실에서 쓰던 귀중품들이 생생하게 보존되고 있다.

서태후는 이곳에서 살면서 태후 한 사람을 위한 전속의 요리사를 128명이나 두고, 행차할 때는 1,200명의 악대를 동원했으며, 하룻밤 연회비용으로 4만냥을 탕진하는 호화극치의 생활을 누렸다.

이화원은 서태후가 손을 대기 이전에도 물론 있었다. 규모는 작았으나 금나라때(1153년)에 이미 궁전이 세워졌었고, 명나라때는 호산원(好山園)으로 불리워지면서 정원으로 개조했다.

청의 건륭제(乾隆帝, 1750년)도 이곳을 여름 궁전으로 활용하고, 곤명호와 만수산을 만들고 청기원(淸漪園)으로 불렀다. 1860년에는 아편전쟁으로 연합군에 의해 파괴 소실된 것을 서태후가 재건했던 것이 다.

이때 투입된 자금은 해군군함 건조예산을 전용한 것인데, 그로인해 청일전쟁때 청나라가 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화원은 지금은 시민공원이 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 ● 황실정원, 景山·北海 공원

옛날 황실소유의 역사적인 유적지들은 지금은 대부분 공원이 되어 시민의 휴식처로 변했다. 자금성 뒤에 있는 경산(景山) 공원도 그 중의 하나이다.

5개의 봉우리가 있는 높이 92m의 언덕이 경산이다. 각 봉우리의 꼭대기에는 유리기와와 정자가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만춘정(萬春亭)은 명나라 말기, 망국의 비극을 지닌 역사적 현장이다.

섬서성(陝西省)에서 병을 일으킨 이자성(李自成)이 자금성으로 쳐들어 왔을때,

최후의 황제 송정제(崇禎帝)는 손수 경종(警鍾)을 난타했는데,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황제를 구하려 오지 않았다.

황비와 황녀는 폭도에 의해 참수되고, 황제는 나무가지에 목을 매, 자살했던 곳이 이 만춘정이다. 당시의 그 나무(槐木)가 지금도 남아 있다.

자금성 주변의 두령을 판 흙을 쌓았다는 설이 있는 인공산 경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자금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경산의 서쪽에 있는 북해(北海)공원도 청나라의 황실정원이다. 북해는 인공호수인데, 여름에는 연꽃이 피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호수속에 있는 섬 경도(瓊島)에는 라마교의 백탑(白塔)이 있는데 이 탑은 북해의 심벌이다.

경도에는 청나라 궁정요리의 전통을 잇는 유명한 식당 방선반점(仿膳飯店)이 있다.

백탑은 청나라 순치제(順治帝, 1651년)

가 세운 것으로 만족(滿族) 출신인 청나라 황실이 믿던 라마교의 교탑이다. 호수의 북쪽에 있는 만불전(萬佛殿)은 건륭제가 그의 어머니 80세 탄신을 기념하여 지은 3층 누각이다.

원래는 그속에 1만개의 금빛 아미타불이 있었는데,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가지고 가버렸다.

또 경내에는 「정원속의 정원」으로 불리는 정심제(靜心齋)와 원나라때 건축물이라는 구룡벽(九龍壁),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룡정(五龍亭), 외에 수많은 전각과 식물원, 유치원 등도 있다.

아시안 게임때는 이곳에 찬란한 조명과 전광장치를 하여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 ● 라마교 유적, 雍和宮 · 白塔寺

북경에는 라마교의 유적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다.

▶ 응화궁의 입구.  
청나라때 지은 라마교의 황교사. 강희제의 제4자 응신왕이 즉위 전 살던 궁이기도 하다.





▲청나라 3황제가 150년간에 걸쳐 지은 별궁 원명원. 규모는 이화원보다 크지만, 1860년 영·불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옹화궁(雍和宮)은 그중의 하나.

황색기외에 붉은 벽을 가진 옹화궁은 청나라 강희제(康熙齊, 1649)때 지은 라마교의 황교사(黃敎寺)다. 강희제의 제4자 옹신왕(雍新王)이 즉위전 살던 궁인데, 즉위 후 사원이 된 것이다.

옹정제(雍正齊)가 즉위 후 이 궁을 라마교에 기증한 것을, 청황실의 종교가 원래 라마교이기도 했지만 당시 티베트족이나 몽골족을 종교로 회유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곳에는 재미나는 불상과 벽화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남녀가 교합하는 환희불(歡喜佛)도 있다. 대중에게 보이기가 흥했던지 중요한 부분은 천으로 가렸다.

북경에는 라마교 사원이 이밖에도 여럿 있다. 호국사(護國寺), 융복사(隆福寺) 등이 라마교 사원이다.

자금성의 서쪽에는 높이가 50.9m나 되

는 거대한 백탑사(白塔寺)가 있는데, 이 절은 원나라 때(1271) 지은 것이다. 사리탑으로 북해공원의 백탑보다 15m나 더 높다.

### ● 中山공원과 圓明園

천안문과 자금성 사이에 있는 중산공원은 옛날 사직단(社稷壇)터에 조성한 도심공원이다. 원내에는 여러개의 명·청시대 건축물이 있는데, 구신전(舊神殿)은 북경에서 가장 완전한 명대(明代)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원에는 수령 1000년이 넘는 잣나무숲과 모란꽃밭이 있다.

원명원(圓明園)은 청나라의 3황제(雍正, 乾隆, 咸豐)가 150년간에 걸쳐 조영한 거대한 별궁이다. 규모로서는 북경 최대일뿐 아니라 이화원보다도 크다.

건륭제가 건설한 해안당(海晏堂)은 베르사이유궁을 모방한 유럽 스타일의 궁전이었다 하나 지금은 파괴되고 없다.

옛날의 호수는 논이 되고 정원은 밭이 되고 오리 사육장이 되어 황폐해졌지만 얼마 전 거석(巨石)과 돌기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북경에는 자죽원(紫竹園)공원, 옥연담(玉淵潭)공원, 도연정(陶然亭)공원, 교외에는 산림(山林)공원, 향산(香山)공원 등이 있다.

〈필자= 해외의학교류회장·최신여행정보 발행인〉